은행

Sector Issue Brief 2025. 11. 27

10월 가중평균금리 동향: 조달금리 하락추세 일단락

Check Point

- 신규 예대금리차 2 개월째 반락
- 조달금리 하락추세 일단락
- 26 년 운용/조달경쟁 심화 예상.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는 긍정적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수신금리 상승으로 신규 예대금리차 2개월째 반락. 조달금리 하락추세 일단락

▶ 2025년 10월 중 예금은행 신규 예대금리차는 1.45%p(총대출-저축성수신)로 9월 대비 6bp 하락하며 9월(-6bp)에 이어 하락 추세를 이어감. 이는 9월과 10월 중 신규 대출금리는 하락흐름을 이어간 반면 신규 저축성 수신금리가 전월대비 각각 3bp, 5bp 반등한 영향. 즉, 25년 연초 이후 수신금리 하락으로 인한 지속적인 신규 예대금리차 확대양상이 9월 이후로는 일단락된 모습

▶ 은행수지에 보다 유의미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총대출-총수신)의 경우도 10월 1bp 하락했고, 3분기 평균 대비로도 1bp 하락. 신규 NIS와 마찬가지로 총수신금리 하락 폭이 1bp에 그치며 조달비용 절감효과가 축소된 영향

▶ 10월 신규 기업대출 금리는 3.96%로 3bp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 금리가 8~9월 대비 7bp반등한 4.24%를 기록하면서 전체 신규대출 금리는 1bp 하락에 그침. 신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의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10.15대책 등 가계대출 규제효과로 가산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게 유지됨

▶ 신규 저축성수신 금리의 경우 10월 중 2.57%로 5bp 반등했으며 9월(+3bp)에 이어 2개월째 반등. 9~10월의 신규 코픽스 금리 역시 동일한 반등추세를 보이며 조달비용 상승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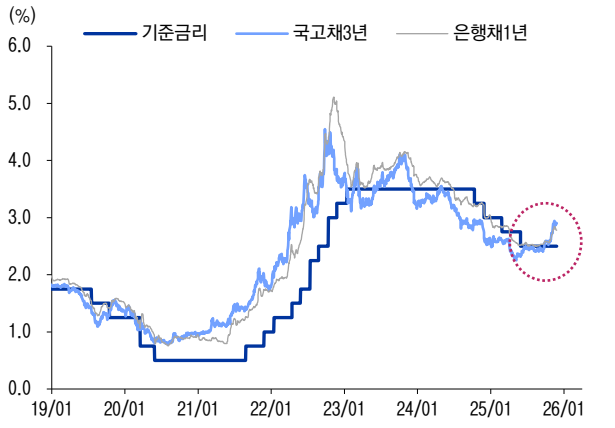
26년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로 NIM 전망 긍정적이나 운용/조달 경쟁심화 예상

▶ 9월 중순 이후 시장금리가 반등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상승 폭이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되고 연말 선제적 예금 확보 경쟁으로 당분간 조달금리 반등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25년 연중 나타난 조달금리 하락이 은행권 NIM 방어배경으로 작용했으나 4분기 이후 그 효과는 축소될 전망

▶ 26년 상반기 한차례 금리인하 이후로는 인하 사이클 종료가 예상되어 내년 은행권 NIM 기본 전망은 긍정적. 다만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기업대출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조달 측면에서도 리프라이싱 효과 소멸, 결제성예금 증가 폭 둔화와 함께 증권사의 IMA 상품 등이 등장하면서 운용 및 조달 양측면에서 부정적 경쟁환경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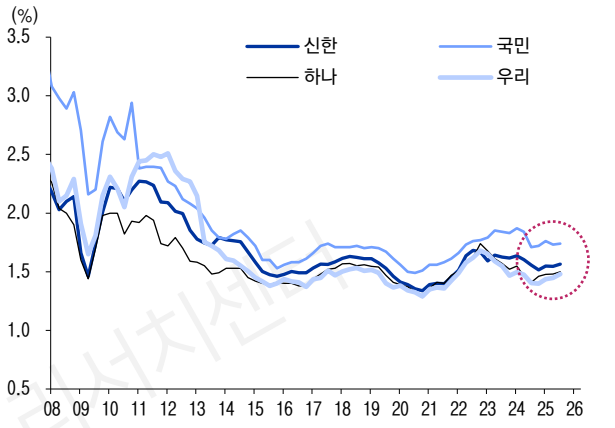
▶ 25년 3분기 누적 4대은행의 평균 NIM은 1bp 하락에 그쳤으며, 25년 연간으로도 1~2bp 하락에 그칠 전망. 26년 NIM은 한차례 금리인하 가정하에서 2~3bp 하락을 예상하며, 연간 추이는 상반기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일시 하락 이후 하반기 완만한 반등 흐름을 예상함. 이미 현재 시장금리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소멸된 수준까지 반등한 상태여서 26년 연중 NIM이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그림1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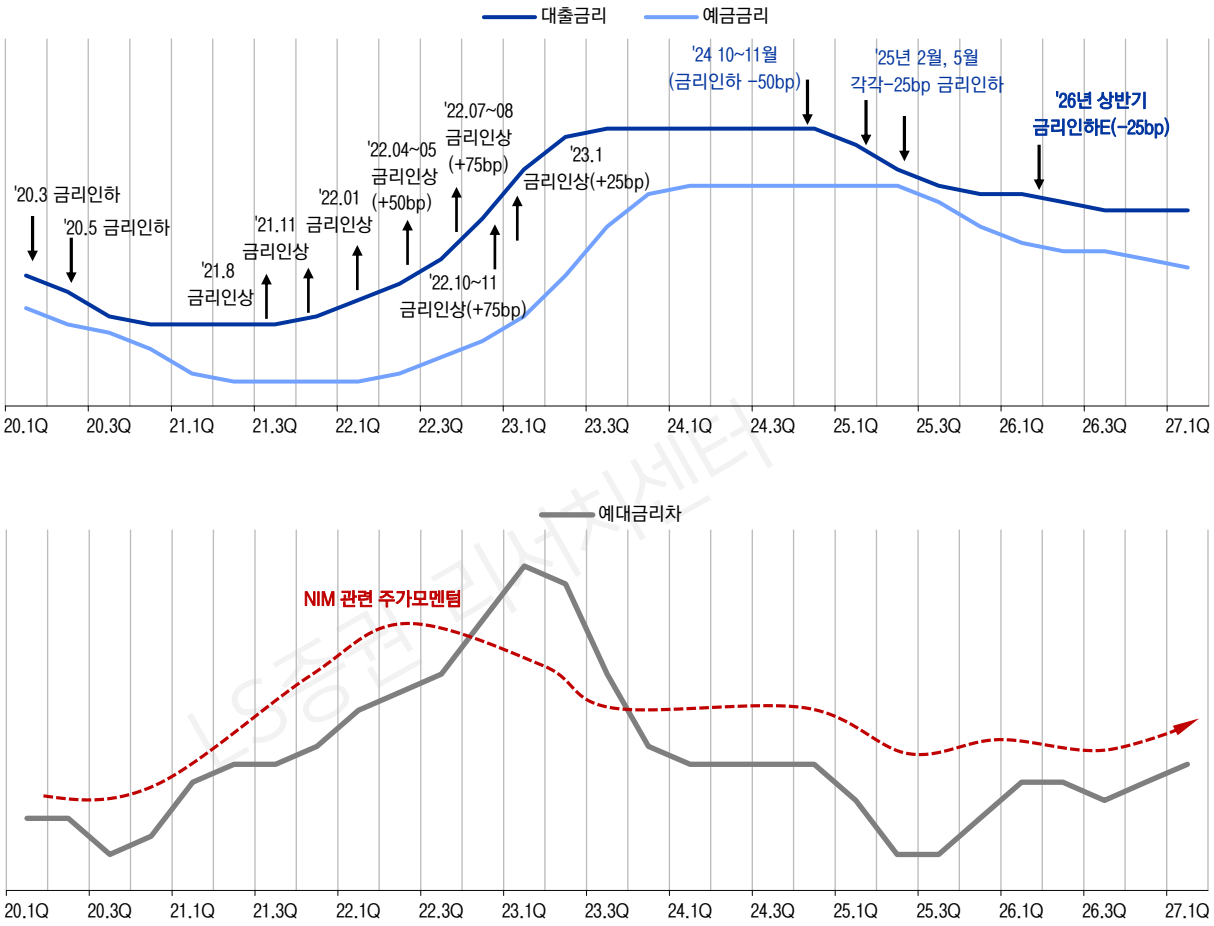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은행별 분기 NI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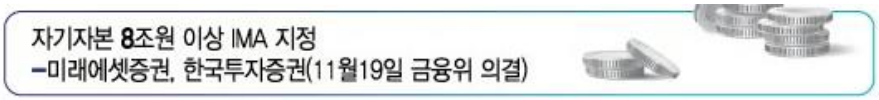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그림3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대출/예금금리 영향과 예대금리차 추정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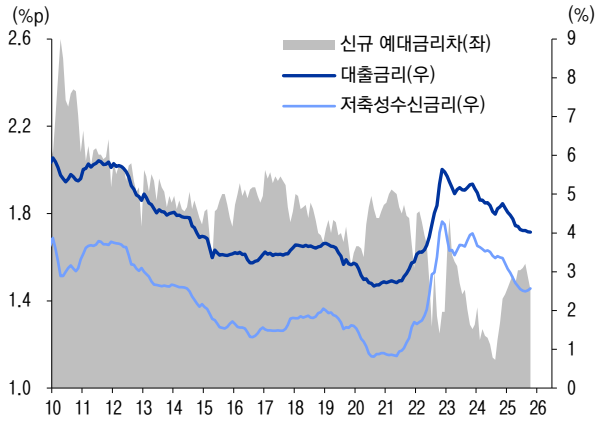
그림4 IMA 상품예시(안)



구분	(저수익) 안정형	(중수익) 일반형	(고수익) 투자형
만기	1~2년 (폐쇄형)	2~3년 (폐쇄형)	3~7년 (폐쇄형)
보수차감 전 목표수익률	연 4.0~4.5%	연 5.0~6.0%	연 6.0~8.0%
상품 특징	우량 대/중견기업, 국외 우량기업 투자, 낮은 수익 변동성%	우량 중견/중소기업, 중수익 대체투자, 일반적인 수익 변동성	중소/벤처 모험자본 중심, 고수익 대체투자, 높은 수익 변동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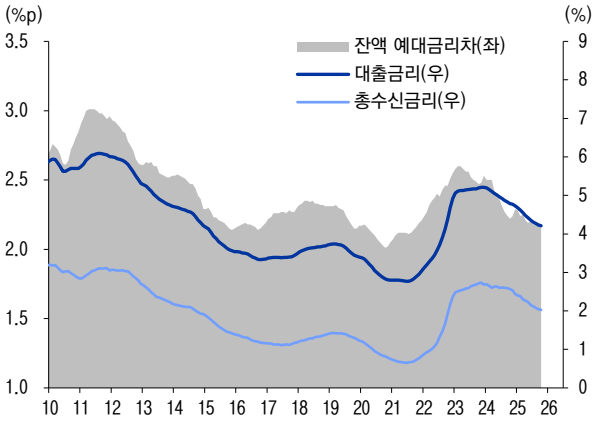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신규 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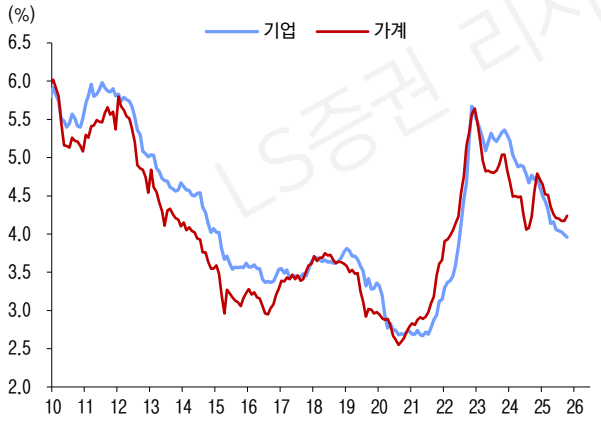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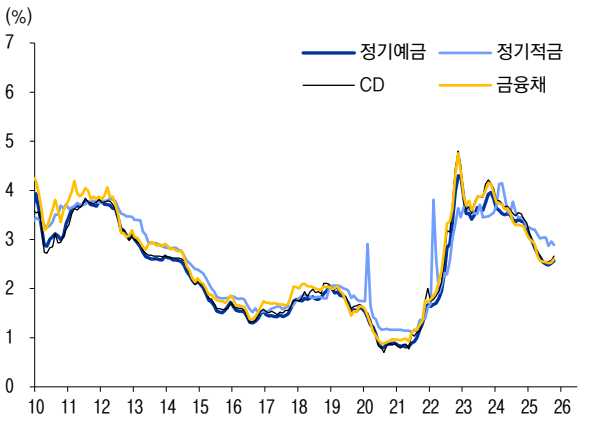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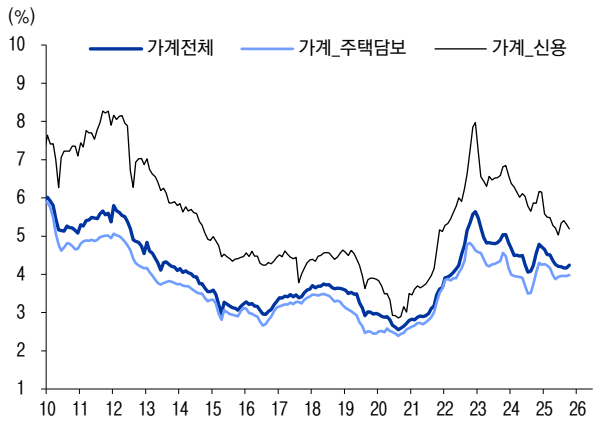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부문별 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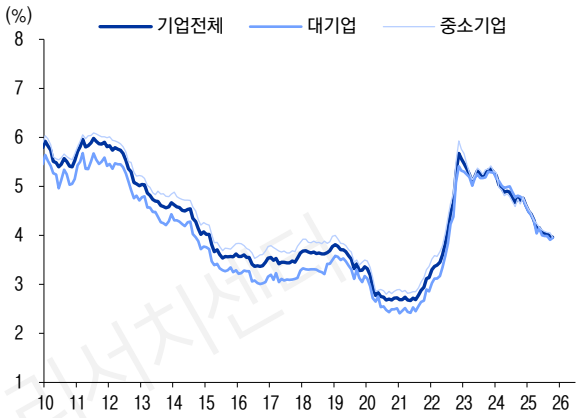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가계대출 부문별 금리(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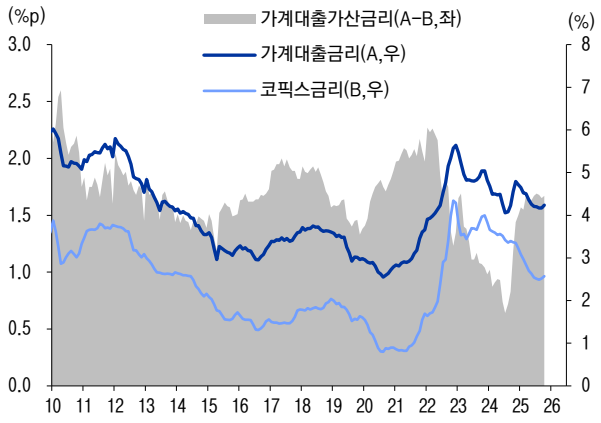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기업대출 부문별 금리(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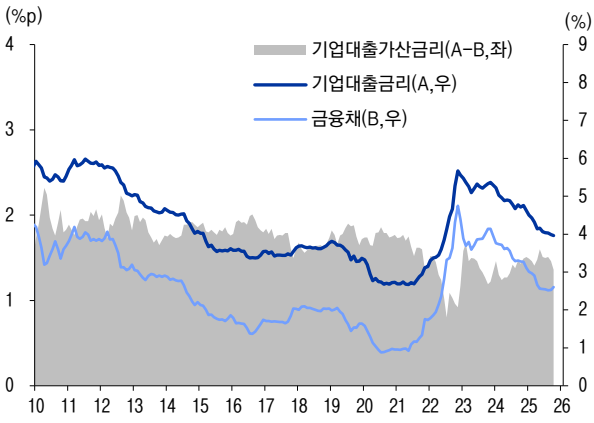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가계대출 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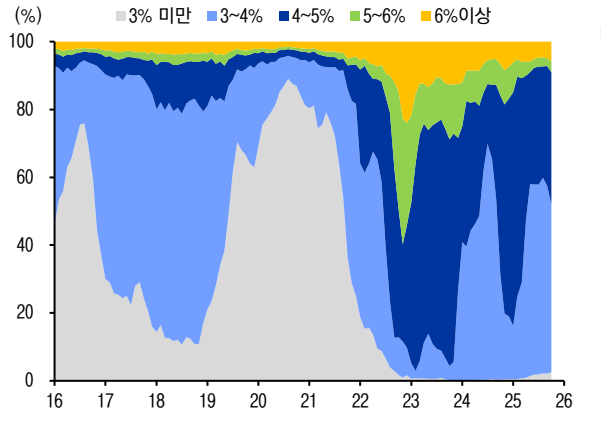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기업대출 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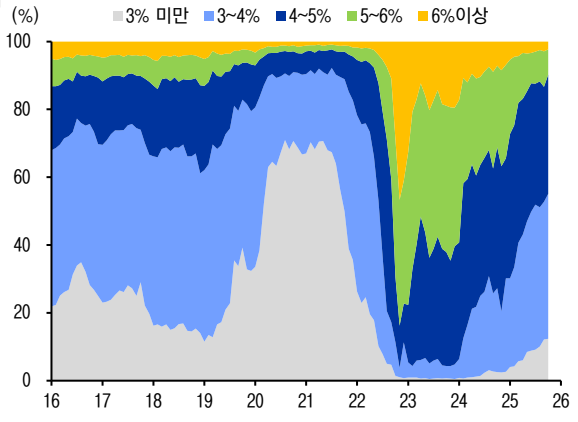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신규취급액)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정기예금 금리별 비중(신규취급액)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4% 10.6%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10. 01 ~ 2025. 0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